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경제금융윤리의식 비교연구*

마린린** · 김경모***

국문초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금융윤리의식을 비교연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의 성별·학년별·수강한 경제 교과 수별 경제금융윤리의식의 실태와 가정 환경적 요인이 학생들의 경제금융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리커트 척도 제작법에 의해 4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지만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강한 경제 교과 수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의 경우 양국 모두 수강한 경제 교과 수가 많아질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출생지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의 경우에는 출생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도시 지역의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계층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의 경우 계층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의 학력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의 경우에는 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경제금융윤리의식, 한·중 대학생, 비교연구, 질문지 법

---

* 이 논문은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2016년 8월에 통과된 석사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주저자.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및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 교신저자.

중등교육연구 제28집 (2016년), pp. 209-23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전체 경제구조에서 경제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다. 특히 종래의 산업경제구조에서 지식경제구조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경제금융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경제금융의 발전은 경제적 발전과 더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황금만능주의를 부추김으로써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안정 사이의 괴리감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부의 편재를 가중시킴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최근에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구조적인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중국의 금융체계 운영에 있어서 위험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중국은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부가 재산권이 모호하거나 위탁대리 등 일련의 현실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또한 금융기구의 심각하게 방만한 경영활동은 윤리적 위험을 야기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은행체계와 증권시장에 있어서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배경 하에 금융업에 있어서 경제금융윤리라는 개념은 날로 중요시되고 있다. 경제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윤리조건은 신용이다. 이는 금융업에서도 다르지 않다. 은행에서 신용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신용이 없는 은행 역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경제금융시스템은 많은 개혁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금융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과거 다수의 경제금융 법을 위반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해당 사건의 예로는 “란톈사건(藍田事件)”, “종정이사건(周正毅事件)”, “유금보사건(劉金宝事件) ”, “산시의 7.28 대금융사기사건 (山西7.28特大金融詐騙案)” 등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경제금융계의 여러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중국의 은행에서 증권시장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 각 사건의 위반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으며 일억을 넘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고위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은행장, 실무자들과 관련이 있으며 금융위기가 극에 다다랐을 때 나타난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로나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사람들의 경제금융윤리의식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중국고섬사건”을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기업체인 중국고섬은 한국 내 유가 증권인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에 상장을 했으나 상장 두 달 만에 회계 부정 사태가 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경우는 당사자인 중국고섬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경제금융윤리문제에 관한 실례가 있다. 한국 미래저축은행의 회장은 금융기관의 운용자금을 임의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금융범죄를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해당 은행은 신임을 잃고 영업이 정지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으며, 더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의 밑거름인 저축은행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했다. 이는 기업의 신용도덕이 경제금융윤리의 매우 중요한 자격요건이 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이 경제주체들의 경제금융윤리의식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경제주체들의 경제금융윤리의식을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점을 고찰해 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더구나 미래의 경제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금융윤리의식은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경제주체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넓게는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도 해당되며 본 연구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경제금융윤리에 관한 내용을 배우기는 하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금융지식이 많은 대학생들이 금융생활에서 더 윤리적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고찰하기로 한다. 본문에서 전통적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지식이 많을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높아진다.’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성별, 학년, 이수 경제과목 수, 가정환경에 따른 경제금융 윤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금융경제교육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금융교육과 경제윤리의 개념

1) 금융교육의 개념

금융교육이 한중 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역시 현재 금융교육은 금융기관이나 민간 비영리단체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서 아직 금융교육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 뚜렷한 기존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교육은 경제교육, 금융소비자교육, 소비자교육 등의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금융교육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몇 가지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금융교육은 유사한 용어로 신용교육, 금융이해력교육, 개인금융교육, 화폐관리교육, 금융소비자교육, 금융·자산관리교육, 투자교육, 소비·저축교육 등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김정호,2004).

금융교육은 기본경제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수입, 지출, 저축, 대출, 금리, 자산관리, 신용카드, 개인파산, 통화정책 등과 같은 금융관련 내용에 초점을 두고 가르침으로써 돈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임현정,2004).

최현자, 최은진(2005)은 경제교육은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원칙이나 경제시스템 등의 이해를 통해서 경제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며, 금융교육이란 기본적인 경제원리와 소비자원칙을 이해하고, 자신과 가계의 금융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얻고, 오늘날의 복잡한 경제 속에서 책임감 있는 소비자가 되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 및 경험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금융교육(Financial Education)이란 경제교육과 소비자교육의 교집합인 부분이다. 금융교육은 소비자교육과 경제교육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급증하면서 거시적, 미시적 경제 환경에서 금융소비자로서 일생동안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시키고 시장 경제에서 기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이지영,2005).

OECD는 금융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OECD, 2008.).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투자자가 금융상품이나 금융 관련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다. 또한 금융교육은 정보나 학습,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 안정과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어디에서 도움을 청하고 어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준다.

---

* 최현자, 최우진(2005).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교육영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한국소비자학회) 16권3호. 115쪽.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금융교육은 경제교육의 큰 틀 안에서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생활 속의 경제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일생동안 경제생활을 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소비와 금융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인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경제윤리의 개념

경제윤리사상은 인간생활 속에서 경제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이며, 인간이 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준거로 하여야 할 궁극적인 윤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사상으로서 이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경제행위에 있어서 규범이라 할 수 있는 경제윤리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화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윤리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양식을 제약하는 윤리적 태도 내지는 정신적 분위기를 총괄하는 개념이며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경제도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적인 측면에서의 경제적 윤리관과 가치관에 해당되는 것이다.*

경제윤리란 자본주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경제적 가치 및 태도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근간으로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경제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체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사리추구와 경쟁을 전제로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경제적 윤리성이 결여되고 경쟁이 비윤리적·비합리적으로 전개되면 자본주의는 위기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경제윤리는 경제현상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그 발전을 약속할 수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경제현상을 올바르게 관찰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경제학이 방법론상으로는 몰가치적이어야 함을 선호하면서도 최소한 경제학 이론이 공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윤리성 즉 가치판단과 분리될 수 없고, 실천적 측면에서도 윤리의 문제를 게재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경제윤리는 경제활동의 목적과 그런 행동양식 그리고 조직양식을 규제

---

* 권오익(1972). 『경제학 대사전』(서울: 박영사). 119쪽.
** 한국국민윤리학회(1984). 『교수요강 국민윤리』(서울:형설출판사). 61쪽.
*** 김관수(1991). 『과소비・투기현상과 제조업 투자』 국민경제제도연구원. 7쪽.
**** 전철환(1980). 『사회정의와 경제의 논리』(서울: 한길사). 80쪽.

하는 종합적인 가치의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생활의 필수요소인 경제활동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규범, 공통의 가치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2. 선행 연구 자료 및 연구문제의 검토

1) 선행 연구 자료의 검토

한국에서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분석의 실질적인 선행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 자료는 시기별 교육과정 변천 및 경제교과서 내용분석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의 사건 발생 후 금융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고, 그와 더불어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카드 사태 이후 한국경제가 다시 회복되면서 경제금융윤리의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제윤리에 관한 연구(이효용; 2000, 전재근; 2002, 유영애; 2010)를 분석해 본 결과, 주로 설문지 형식으로 분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론부분은 주로 경제윤리의 개념, 역할 그리고 덕목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살피고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 기존 연구자료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금융이해력 측정을 통해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오영수, 도규태; 2005, 김미리; 2006, 정진식; 2008, 유상훈; 2009)이다. 둘째, 선진국의 금융교육과 한국의 금융교육을 비교하여 금융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도규태; 2004, 방혜영; 2010, 김자봉; 2013, 김경모; 2013)이다. 셋째, 금융에 대한 경제교과서 내용분석을 통한 금융교육의 연구이다(서영제;2010, 윤두환; 2011, 전주회; 2011).

본 논문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은 앞서 설명된 세 번째 범주의 선행연구들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영제(2010)의 논문은 금융교육의 내용을 다섯 개 영역(금융의 개요, 소비와 신용, 저축과 투자, 재무 설계, 금융환경)으로 나누어 각 출판사별 교과서의 내용분량 및 요소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금융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하고 7차 교육과정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 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내용체계와 현재 한국 금융교육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4-1> 한국의 금융교육과 경제윤리 관련 선행연구 리스트

주체	년도	연구자	제목	연구자료 및 출처
금융교육	2004	도규태	금융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한국경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금융교육 중심으로)	경복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오영수 도규태	고등학생의 금융 이해도와 바람직한 금융교육 방향 탐구	중등교육연구
	2006	김미리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 이해력 및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8	정진식	청소년들의 금융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측정을 통해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성영제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금융교육 내용 분석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윤두환	경제교육 표준에 따른「경제」교과서 내용 분석: 화폐·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전주희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금융영역 내용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김진영	금융교육 무엇을 어떻게 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3	김자봉	우리나라 및 해외 선진국 금융교육의 현황과 개선과제	금융 포커스 22권 46호
	2013	김경모	한국과 일본의 금융교육 비교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5권 3호
경제윤리	2000	이효용	고등학생의 경제윤리의식과 경제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과천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정재근	경제윤리의식의 실태와 결정요인 연구 -강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김미진	중학생의 경제윤리의식 정립을 위한 도덕 교육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유영애	고등학교 경제교육이 학생들의 경제윤리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 지식이 소비자윤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박향숙	도덕·윤리과의 경제윤리교육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두환(2011)의 논문은 1차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과 7차 교육과정까지의 경제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서 화폐·금융 부분의 내용을 분석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분석에서 언급된 2009개정 교육과정의 경제교과서가 시기상 출판 전이었기 때문에 부분 개정된 '경제생활과 금융'부분의 교과서 분석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다.

전주회(2011)의 논문도 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각 시기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역할을 합리적이며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을 추구하는 경제 교육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금융부분이 그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해왔는지 살펴보고 한국 금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발표된 금융 혹은 금융교육 관련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구체적인 목차는 다음의 표와 같으며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2> 중국의 금융교육과 경제윤리 관련 선행연구 리스트

년도	연구자	제목	연구자료 및 출처
2009	매세운 (梅世雲)	중국 금융도덕 위험의 이론 분석 中國金融道德風險的理論分析	<윤리학연구> 《論理學研究》
2009	진려려(陳麗麗) 펑지강(彭志强)	대학생의 금융행위 및 금융교육에 대한 계시 大學生金融行為及其對金融教育的啟示	상하이이공대학 관리학원 上海理工大學管理學院
2013	진선 (秦璇)	중국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관심도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후베이 지역을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매세운(梅世雲)의 논문은 금융도덕위험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덕위험의 분류를 실시하였다. 도덕위험이 발생한 원인은 주로 개인의 인성 유발, 나쁜 사회의 환경 유발, 금융업의 특성 유발 및 도덕의 본질 유발이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진려려(陳麗麗), 펑지강(彭志强)의 논문은 대학생의 금융행위로부터 출발하여 먼저 F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와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 학생들의 금융행위를 비교 분석 한 이후에 중국 대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교육 제안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진선(秦璇)의 논문은 정규교육기관과 비정규교육기관의 금융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과 금융교육경험이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및 금융교육 관심도 및 요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중국 대학생들의 금융지식을 강화하고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의 설정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이다.

<연구문제 1>경제금융윤리의식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E. Maccoby와 C. Jacklin은 남녀간의 성적 차이는 언어적·시각적·공간적·수리적 능력과 공격성에서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여자는 가치관과 관련된 정서적, 가치적인 감정의 형성과 표현에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김경환은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집안 일을 더 많이 돕고 계획성 있는 소비생활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히고 있다.** 또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사회과의 개념에 있어 더 우수한 성취를 보였다는 연구견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본 연구의 경제금융윤리의식 정도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보다 건전한 경제금융윤리의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경제금융윤리의식은 경제금융지식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H. Leibenstein은 교육이 어떤 특수한 기술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일정한 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창출해 내는데, 이러한 태도는 교육과정에서 직접 습득된 특수한 기술보다 경제발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중요시된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그만큼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경제금융 관련 교과 이수 단위가 많고, 학습 시간이 풍부한 학

---

* 윤대혁, 박재린(1997). 『인간관계론』(서울: 서원출판사). 467-468쪽.

** 김경한(1989). 『초·중학생 경제의식 조사』(서울: 열매 농원 문화사). 40-50쪽.

*** Archer. E. J(1962). Concept Identification as a Function of Obviousness of Relevant and Ir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16-620쪽.

**** 이종경(1993). "중·공등학생의 경제윤리의식과 가정환경요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2쪽.

생들이 경제금융윤리의식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학습하는 지식이 학생의 가치·태도 면에 영향을 끼친다는 여러 연구결과를 볼 때 대학 1학년 학생들과 대학 2·3·4학년 학생들은 경제금융윤리의식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문제 3>경제금융윤리의식은 가정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정은 인간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인간형성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학습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환경으로 전환시킬 때 학교환경에서 의도하지 못한 상당한 부분을 성취할 수 있다. 가정은 여러 가지 양식으로 인간의 성장, 발달과업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본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 요인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나타날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 적용된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조사대상과 측정도구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1> 표집 학급과 학생 수

학년	표집 한국 학생 수(명)			표집 중국 학생 수(명)		
	남	여	계	남	여	계
대학교 1학년	25	24	49	25	24	49
대학교 2학년	25	26	51	24	24	48
대학교 3학년	24	24	48	23	25	48
대학교 4학년	24	24	48	23	26	49
합계	98	98	196	95	99	194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 경상대학교와 중국 산동대학교의 재학생으로 각 대학에서 학년, 생별,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그 중에서 경제금융지식과 관련된 필수교육교과목을 많이 수강한 학생들과 경제금융지식에 대해 따로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조사하였다. 총 설문 대상은 400명으로 각 대학별로 200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6일에서 12월 6일까지 실시하였다. 회수된 유효 설문지는 각 196부와

* 장중용(1996). “경제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요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32쪽.

194부였다.

한국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의 여건과 대학 평판 수준이 비슷한 중국 대학교를 찾은 결과 산동성 제남시에 있는 산동대학교이 비교 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경제금융지식과 경제금융윤리의식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 그리고 중국 산동대학교 금융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표 3-1-1>과 같다. 약간이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한국과 중국 모두 학년별로 25명 내외의 여학생과 25명 내외의 남학생이 설문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표 3-2-1> 설문지의 문항 내용

구분	변인	문항내용	문항번호
종속변수	경제금융윤리	연휴특별 세일 기간에 백화점이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할인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선 안 된다.	1
		신발을 구매할 때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의 근무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2
		사업은 안전한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	3
		경제적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권리를 가져야한다.	4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을 위해 재정적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	5
		구입된 상품들은 어떤 인간의 가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6
독립변수	성별	남, 여	31
	학년	1학년생, 2학년생, 3학년생, 4학년생	34
	고등학교와 대학 생활 동안 수강한 경제관련 과목 수	0-1, 2-3, 4-5, 6-7, 8 이상	36
	가정상황	출생지	32
		가정 경제 상황	33
		부모님의 학력 (부모님 중 높은 쪽)	35

2. 측정도구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 이용된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써 그 내용구성은 경제금융윤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종속변수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금융윤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독립변수는 성별, 출생지등 개인정보와 가정 경제 상황과 부모님의 학력 등 가정환경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 3-2-1>과 같다.

2) 분석방법

4점 척도로 구성된 각 문항에서 긍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에 4점, "그런 편이다"에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적인 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PSS를 이용하였으며,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반응과 분포의 특성을 보기 위하여 빈도(frequency)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의 검증을 위하여 여학생과 남학생간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Samples t-test)을 실시하여 여학생과 남학생의 경제금융윤리의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2의 검증을 위하여 학년 그리고 수강한 경제 교과 수에 따른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에 대해서 Duncan's Multiple-Range Test를 실시하여 학년별 경제금융윤리의식 차이를 검증하고 수강한 경제 교과 수 따라 경제금융윤리의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3의 검증을 위하여 부모의 학력·생활수준에 따른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에 대해서 Duncan's Multiple-Range Test를 실시하여 가정환경 요인별 경제금융윤리의식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설문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을 사용하였다. 한국과 중국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Cronbach's Alpha가

---

* 긍정적인 답: 1, 2, 3, 4, 6,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1, 24, 27, 28, 29.
** 부정적이 답: 5, 7, 11, 20, 22, 23, 25, 26, 30.

각 .900와 .754로 나타났으며,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설문법호	설문수	Cronbach's Alpha
한국	1-36	36	.900
중국	1-36	36	.754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이수 교과 수별 그리고 가정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특성을 측정하고, 이들 각 요인과 경제금융윤리의식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은 한국 1학년이 26%, 2학년이 26%, 3학년이 24.5%, 4학년이 24.5% 차지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의 경우 1학년이 25.3%, 2학년이 24.7%, 3학년이 24.7%, 4학년이 25.3%였다.

수강한 경제 교과 수에 대한 한국의 경우는 0-1개가 7.7%, 2-3개가 29.6%, 4-5개가 13.8%, 6-7개가 21.9%, 8개 이상이 27.0%차지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의 경우 0-1개가 15.5%, 2-3개가 25.3%, 4-5개가 10.8%, 6-7개가 17.5%, 8개 이상이 30.9%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가정 환경요인으로는 출생지, 생활수준과 부모의 학력으로 나누어 3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먼저 출생지에 대한 한국의 경우는 대도심이 31.6%, 도시외곽이 24.5%, 읍이 16.3%, 중소도시가 35%, 시골이 19%로 각각 나타났다. 중국 학생들은 대도심이 19.6%, 도시외곽이 24.2%, 읍이 30.4%, 중소도시가 11.9%, 시골이 13.9%로 각각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가정경제 상황별로는 한국 하층수준이 6.1%, 중하층수준이 47.4%, 중상층수준이 42.3%, 상층수준이 4.1% 차지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의 경우 하층수준이 10.8%, 중하층수준이 44.8%, 중상층수준이 37.1%, 상층수준이 7.2%였다. 부모의 학력은 한국지역에 대한 중학교 졸업이하경우가 5.6%, 중학교 졸업경우가 18.4%, 고등학교 졸업경우가 33.7%, 대학교 졸업경우가 37.2%, 대학원 졸업경우가 5.1%로 나타났다. 중국학생 부모들은 중학교 졸업이하경우가 10.3%, 중학교 졸업경우가 24.2%, 고등학교 졸업경우가 27.3%, 대학교 졸업경우가 31.4%, 대학원 졸업경우가 6.7%로 나타났다.

<표 4-1-1> 응답자의 특성 및 배경

구분		한국		중국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성별	남	98	50%	96	49.5%
	여	98	50%	98	50.5%
	합계	196	100%	194	100%
학년별	1학년생	49	26%	49	25.3%
	2학년생	51	26%	48	24.7%
	3학년생	48	24.5%	48	24.7%
	4학년생	48	24.5%	49	25.3%
	합계	196	100%	194	100%
수강한 경제 교과 수	0-1	15	7.7%	30	15.5%
	2-3	58	29.6%	49	25.3%
	4-5	27	13.8%	21	10.8%
	6-7	43	21.9%	34	17.5%
	8이상	53	27.0%	60	30.9%
	합계	196	100%	194	100%
출생지	대도심	62	31.6%	38	19.6%
	도시외곽	48	24.5%	47	24.2%
	읍	32	16.3%	59	30.4%
	중소도시	35	17.9%	23	11.9%
	시골	19	9.7%	27	13.9%
	합계	196	100%	194	100%
가정 경제 상황	하층	12	6.1%	21	10.8%
	중하층	93	47.4%	87	44.8%
	중상층	83	42.3%	72	37.1%
	상층	8	4.1%	14	7.2%
	합계	196	100%	194	100%
부모님의 학력 (부모님 중 높은 쪽)	중학교 졸업 이하	11	5.6%	20	10.3%
	중학교 졸업	36	18.4%	47	24.2%
	고등학교 졸업	66	33.7%	53	27.3%
	대학교 졸업	73	37.2%	61	31.4%
	대학원 졸업	10	5.1%	13	6.7%
	합계	196	100%	194	100%

2. 응답자 특성별 경제금융윤리의식 분석

조사대상 학생들의 특성별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기초 통계량은 <표 4-2>와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 긍정적인 답변에 4점, 가장 부정적인 답변에 1점을 부여하였으므로 중앙값인 2.50보다 큰 경우 경제금융윤리의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1) 성별 경제금융윤리의식

<연구문제 1>을 검정한 결과는 <표 4-2-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4-2-1-1>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성별 기술통계

구분		한국			중국		
		빈도	평균	평균편차	빈도	평균	평균편차
성별	남	98	2.814	.112	96	2.667	.151
	여	98	2.840	.136	98	2.720	.142

경제금융윤리의식에 대해서 성별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4-2-1-2>과 같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지만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t값이 1.492로 성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중국의 경우는 t값이 -2.804로 설별에 따라 경제금융윤리의식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2>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성별 t-test

구분	t값	자유도	p값	평균차이
한국	1.492	194	.137	.026
중국	-2.524	192	.012	-.053

2) 학년 그리고 수강한 경제 교과 수별 경제금융윤리의식

(1)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

위의 연구문제를 검정한 결과는 <표 4-2-2-1>과 같이 나타났다.

경제금융윤리의식에 대해서 학년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과 중국에서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4-2-2-2>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학년별 분산 분석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통계량	p값
한국	그룹-간	.983	3	.328	30.556	.000
	그룹-내	2.059	192	.011		
	합계	3.042	195			
중국	그룹-간	2.196	3	.732	67.826	.000
	그룹-내	2.050	190	.011		
	합계	4.246	193			

위 결과를 보면 한국과 중국 모두 학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사후 검증인 Duncan-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2-3>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학년별 Duncan-test

구분		한국				구분		중국			
		빈도	유의수준=.05					빈도	유의수준=.05		
			1	2	3				1	2	3
학년	2학년	51	2.744			학년	4학년	49	2.527		
	1학년	49	2.787				3학년	48		2.685	
	3학년	48		2.851			2학년	48			2.758
	4학년	48			2.932		1학년	49			2.807
	p값		.249	1.000	1.000		p값		1.000	1.000	.147

위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학년별 경제금융윤리의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학년이 높을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 대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생들의 수강한 경제 교과 수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

위의 연구문제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 <표 4-2-2-4>과 같이 나타났다.

<표 4-2-2-4>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수강한 경제 교과 수별 기술통계

구분		한국			중국		
		빈도	평균	평균편차	빈도	평균	평균편차
수강한 경제학 교과목 수	0-1	15	2.766	.136	30	2.779	.132
	2-3	58	2.770	.105	49	2.793	.089
	4-5	27	2.773	.091	21	2.763	.109
	6-7	43	2.854	.084	34	2.662	.115
	8이상	53	2.916	.126	60	2.564	.118

경제금융윤리의식에 대해서 수강한 경제 교과 수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과 중국에서 수강한 경제 교과 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4-2-2-5>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수강한 경제 교과 수별 분산 분석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통계량	p값
한국	그룹-간	.800	4	.200	17.043	.000
	그룹-내	2.241	191	.012		
	합계	3.042	195			
중국	그룹-간	1.851	4	.463	36.513	.000
	그룹-내	2.395	189	.013		
	합계	4.246	193			

<표 4-2-2-6>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수강한 경제 교과 수별 Duncan-test

구분		한국				구분		중국			
		빈도	유의수준=.05					빈도	유의수준=.05		
			1	2	3				1	2	3
수강한 경제학 교과목 수	0-1	58	2.766			수강한 경제학 교과목 수	8이상	60	2.564		
	2-3	27	2.770	2.770			6-7	34		2.662	
	4-5	15	2.773	2.773			4-5	21			2.763
	6-7	43		2.854	2.854		0-1	30			2.779
	8이상	53			2.916		2-3	49			2.793
	p값		.999	.060	.288		p값		1.000	1.000	.881

아래에 제시된 표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과 중국 모두 수강한 경제 교과 수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사후 검증경제금융윤리의식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대학생들 수강한 경제 교과 수 8개 이상이 2.9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0-1은 2.766/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강한 경제 교과 수가 많아질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2-3은 2.79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개 이상이 2.564/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수강한 경제 교과 수가 많아질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

(1) 학생들의 출생지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

경제금융윤리의식에 대해서 출생지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경우는 유의수준 5%에서 p값이 0.05이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는 중국에서 출생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4-2-3-1>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출생지별 분산 분석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통계량	p값
한국	그룹-간	.019	4	.005	.305	.874
	그룹-내	3.022	191	.016		
	합계	3.042	195			
중국	그룹-간	.766	4	.192	10.407	.000
	그룹-내	3.480	189	.018		
	합계	4.246	193			

중국의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사후 검증인 Duncan-test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3-2>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출생지별 Duncan-test

구분		중국			
		빈도	유의수준=.05		
			1	2	3
출생지	중소도시	23	2.617		
	시골	27	2.622		
	읍	59	2.659	2.659	
	대도시	38		2.740	2.740
	도시외곽	47			2.779
	p값		.808	.187	.848

경제금융윤리의식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국대학생들의 출생지가 중소도

시가 경우 2.617/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시골이 2.622/4, 읍이 2.659/4, 대도시가 2.740/4, 도시외곽이 2.779/4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출생지 좋아질수록 대체적으로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학생들의 가정 경제상황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

경제금융윤리의식에 대해서 가정의 경제생황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유의수준 5%에서 p값이 0.05이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3>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가정 경제상황별 분산분석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통계량	p값
한국	그룹-간	.025	3	.008	.521	.668
	그룹-내	3.017	192	.016		
	합계	3.042	195			
중국	그룹-간	.028	3	.009	.424	.736
	그룹-내	4.218	190	.022		
	합계	4.246	193			

(3) 학생들의 부모의 학력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

위의 연구문제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경제금융윤리의식에 대해서 부모의 학력별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경우는 유의수준 5%에서 p값이 0.05이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는 중국에서 부모의 학력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p<.05$)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4-2-3-4>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부모 학력별 분산 분석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통계량	p값
한국	그룹-간	.111	4	.028	1.802	.130
	그룹-내	2.931	191	.015		
	합계	3.042	195			
중국	그룹-간	.456	4	.114	5.691	.000
	그룹-내	3.790	189	.020		
	합계	4.246	193			

중국의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에 대해서 사후 검증인 Duncan-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3-5> 경제금융윤리의식에 관한 부모 학력별 Duncan-test

구분		중국		
		빈도	유의수준=.05	
			1	2
부모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0	2.632	
	중학교 졸업	47	2.636	2.636
	고등학교 졸업	53	2.694	2.694
	대학교 졸업	13	2.721	2.721
	대학원 졸업	61		2.753
	p값		.256	.059

경제금융윤리의식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국대학생들 중학교 졸업 이하가 2.632/4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2.75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윤리의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경상대학교와 중국의 산둥성 제남대학교 학생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법을 적용하여 경제금융윤리 의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 학생들의 성·학년, 수강한 경제 교과 수, 가정 환경적 요인이 경제금융윤리 의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조사도구는 리커트 척도 제작법에 의해 4점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가 적용되었으며 통계처리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증분석, 일원분산분석과 Dunan-Test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요인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지만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낮게 나타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셋째, 수강한 경제 교과 수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의 경우 한국에서는 수강한 경제 교과 수가 많아질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 교과 수가 많아질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낮게 나타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넷째, 출생지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의 경우 한국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에서 학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구체적으로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 경제상황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부모의 학력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의 경우 한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바 부모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이 중국 대학생들보다 경제금융윤리의식의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의 경우에는 경제금융지식이 많을수록 경제금융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결론에서 중국의 학교교육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나타나는 요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중국은 과거 공산정권의 탄생 이후 계획경제체제를 경험했고, 등소평의 주도하에 중국식 사회주의 사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하게 된다. 이렇듯 급변하는 중국의 경제 상황 하에서 갑작스런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은 사람들 사이에 돈을 벌어 잘 살게 되는 것이 최고의 선으로 여겨지는 배금주의의 만연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중국에서의 경제금융윤리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체제의 전환 시기 사회 곳곳에서 부도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사회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까지 충격을 준 것을오 보인다.

둘째, 학교차원에서 중국의 대학 교육은 학생들의 윤리적 교육보다 전문적인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제금융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관련 교과서에서는 경제학 개론을 요약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인지적 측면만 강조하고 바람직한 가치·태도 형성을 위한 정서적 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금융윤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과 중국 산동대학교 금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향후 연구를 통해서는 본 연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거나 결론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권오익(1972). 『경제학 대사전』(서울: 박영사). 119쪽.

김관수(1996). “경제윤리의식과 사회환경의 상관관계 연구.” 『경제교육연구』 제2호. 43쪽.

김미리(2006) “대학생 소비자의 금융 이해력 및 금융소비자교육 요구도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2013). “금융교육 무엇을 어떻게 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발표논문집』(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3권 0호. 25-39쪽.

김경모(2013). “한국과 일본의 금융교육 비교연구.”『시민교육연구』 제45권 3호. 55-80쪽.

김경한(1989). 『초·중학생 경제의식 조사』(서울: 열매 농원 문화사). 40-50쪽.

김미진(2004). “중학생의 경제윤리의식 정립을 위한 도덕 교육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규태(2004). “금융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한국경제교육의 바람직한 방향-금융교육 중심으로-.” 경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향숙(2011). “도덕·윤리과의 경제윤리교육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지준(2014). 『<개정 2판>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서울: 21세기사). 14-277쪽.

성영제(2010). “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금융교육 내용 분석.”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영수, 도규태(2005). “고등학생의 금융 이해도와 바람직한 금융교육 방향 탐구.”『중등교육연구』53(1). 283-300쪽.

윤대혁, 박재린(1997). 『인간관계론』(서울: 서원출판사). 467-468쪽.

윤두환(2011). “경제교육 표준에 따른「경제」교과서 내용 분석: 화폐·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영애(2010). “고등학교 경제교육이 학생들의 경제윤리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 지식이 소비자윤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경(1993). “중·공등학생의 경제윤리의식과 가정환경요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효용(2000). “고등학생의 경제윤리의식과 경제윤리교육에 관한 연구 -과천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해녕(2015). “한국과 중국의 고등학교 경제교육 비교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구(1991). “중학생의 경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장중용(1996). “경제윤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요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주회(2011).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금융영역 내용분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철환(1980). 『사회정의와 경제의 논리』(서울: 한길사). 80쪽.
전숙자(1983).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성과의 상관관계.” 『숭의여자대학 박종훈총』 제7집. 123-153쪽.
정재근(2002). “경제윤리의식의 실태와 결정요인 연구 - 강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진식(2008). “청소년들의 금융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 -고등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측정을 통해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현자, 최우진(2005).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 분석-교육영역을 중심으로.”『소비자학연구』(한국소비자학회) 16권3호. 115쪽.
한국국민윤리학회(1984). 『교수요강 국민윤리』(서울:형설출판사). 61쪽.

국외문헌

梅世雲(2009). “中國金融道德風險的理論分析.” 『論理學研究』. 2014年2月. 44-51쪽.
陳麗麗,彭志强(2009). “大學生金融行爲及其對金融教育的啓示.”『金融經濟』(理論版). 2014年9月. 121-122쪽.
盧紋岱(2012). 『SPSS統計分析 (第4版)』(北京: 電子工業出版社). 1-522쪽.
진선(秦璇). “중국 대학생의 금융이해력과 금융교육관심도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후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Archer. E. J(1962). Concept Identification as a Function of Obviousness of Relevant and Ir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616-620쪽.

홈페이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http://economics.gnu.ac.kr/

山東大學經濟學院 http://www.econ.sdu.edu.cn/default.site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s Major College Students' Economic-Financial Ethics in Korea and China

Lin-Lin Ma and Kyungmo Kim

The economic growth wa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value during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While the importance of social morality and social values was neglected. So, the deficiency of the economic-financial ethnical consciousness caused many social problems in both Korea and China.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iculum of economics major college in economic-financial ethnical. First, various materials and preceeding studies were referred. Second, the average level of economic-financial ethnical consciousness in both korea and china. Third, the effects of the sex, the grade, the economic lessons and the family environment on the economic-financial ethnical of the college students who are studied i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ShanDong University.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some college students, and the number of observation is 400(the number of korea students is 200 and the number of Chinese students is 200). The collected questionnaire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sex, grade, economic lessons, family environment) and the dependent variables(economic-financial ethnical consciousness). Family environment variable was relation with social economic status and economic status was subdivided into parent's education, family income and birthplace. SPSS was used for all statistical analysis of this study.

Based on the design, the study was carried out, and the result are as the followings.

First, female students in both Korea and China have more desirable economic-financial ethnical consciousness than male students.

Second, Korea students in high grade have higher economic-financial ethnical consciousness than those in low grade. However, Chinese students in low grade have higher economic-financial ethnical consciousness than those in high grade.

Third, Korea students who study more economic-financial lessons have higher economic-financial ethnical consciousness. However, Chinese students is opposite to Korea students. In China, the students who study less economic-financial lessons have higher economic-financial ethnical consciousness than those students who study more economic-financial lessons. This means that the problem for Chinese school education still exists.

Fourth, the factors of family environment don't effect that much on the economic-financial ethnical consciousness of the Korea college students. But the factors of family environment effect that much on the economic-financial ethnical consciousness of the Chinese college students.

Finally, further research about college students' economic-financial ethics and more detail information of other college students about the economic-financial ethics are needed.

Key words: Econo-financial ethic education, Korea-chineses university student, questionaire survey

논문 투고일: 2016. 11. 08.
심사 완료일: 2016. 12. 08.
게재 결정일: 2016. 12. 10.